

最優秀 常任委 受賞所感

制度와 意識이 竝行하는 法治主義 俱現의 好機로 삼으며



朴 憲 基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 한나라당)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번 200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金大忍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10명의 모니터단 공동단장님과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고한 573명의 현장 모니터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희망을 준 국정감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내용 면에서 부족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충실히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민의혹사함을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희망의 국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난 99년도부터 줄곧 보여준 귀 모니터단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니터 활동은 우리 국정감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생산적 국정감사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올 국정감사를 평함에 있어 여·야 소모적 정쟁, 중복 질의, 자료의 중복 및 과다요청으로 인한 행정마비,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구시대적인

관행이 남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정감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상임 위별 노력과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제고, 진지하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국정감사 태도가 돋보이는 국감이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러 가지 여야간의 갈등상황이 많은 주요 이슈를 가진 상임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부터 익일 1시 넘게 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증진과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의혹사항을 풀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였으며, 제도와 의식이 병행하는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성실한 모니터링과 함께 여야를 초월하여 합심단결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여준 작지만 혁명적인 실천과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조직적이면서 절제되고 전문적인 국감모니터활동이 국정감사의 참모습을 찾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만드는데 큰 밑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거듭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200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국정감사 모니터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감NGO모니터단의 활동들이 우리 정치를 민주적으로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優秀 常任委 受賞所感

國民經濟에 活力을 주는
合理的 産業資源政策 推進을 다짐하며



朴 光 泰

산업자원위원장 (국회의원 · 민주당)

먼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金大忍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10명의 모니터단 공동단장님과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고한 573명의 현장 모니터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은 姜仁燮 한나라당 간사위원과 趙誠俊 민주당 간사위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번 국정감사는 미국 테러사건이후 에너지 파동우려 등으로 국정감사의 초점이 본 상임위원회 소관 해당부처에 쏠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세무조사, 일부 상임위에서 불거져 나온 소위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속 동료의원님들은 언론의 무관심에도 아랑곳없이 밤늦도록 국정감사를 준비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

어 배포하는가 하면,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은 이번 국정감사장의 불침번이 되어 분위기를 쇄신하고, 항상 긴장케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해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 보았고, 그 전문성과 성실성에 깊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진행된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모니터를 하는 요원들의 헌신적 수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산업 육성, 장단기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의 풀뿌리조직인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식산업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인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세계시장을 겨냥한 무역활성화를 위해 더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으로 여기며,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감기간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소비자연맹 金大忍 총재님과 한국산업정책연구회 元仁浩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단 여러분의 땀이 우리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거듭 우리 산업자원위원회를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最優秀 國會議員 受賞所感

國民權益을 지켜내는
生産的 議政活動을 재다짐하며



趙 舜 衡

국회의원 · 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70여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200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국정감사 모니터단 공동단장 여러분과 573명의 국정감사 모니터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많은 가운데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비롯하여 몇몇 의원만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꼭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개혁 공추협, 흥사단, 여성유권자연맹 등 전통있는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연인원 573명의 모니터요원을 동원·편성하여 2001년도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였고, 또한 국정감사기간은 물론 지난 10월 30일 시상식까지도 단원 여러분이 거의 매일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국정감사상황을 점검, 분석, 평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방청인원의 제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비협조 등 어려운 여건과 제약 속에서 의정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국감 모니터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

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의정감시 활동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자극과 격려가 되었으며, 보다 충실하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예산심의 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정보제공 등의 협조 그리고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의정감시활동과 공정한 평가가 조화를 이룰 때에 더욱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 대하여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고 충실한 의정감시활동과 건전하고 공정한 평가와 아낌없는 비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0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수상을 더욱 국민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대표·대변자로서 생산적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優秀議員 受賞所感

업그레이드 된 議政活動의 注文으로 여기며



安 東 善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의원 (국회건설교통위원)

NGO 국감평가모니터단으로부터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동단장님 이하 국정감사 모니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 뜻깊고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정치, 성실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평함에 있어 미국에 테러사태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이목이 분산되어 형식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여·야의 소모적 정쟁, 중복 질의, 자료의 중복 및 과다요청으로 인한 행정마비,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구시대적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NGO 국감평가모니터단의 의정감시 활동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자극과 격려가 되었으며, 보다 충실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야간에 당리당락을 떠나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국정감사에 충분히 활용하는 등, 충실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듭 NGO 국감평가모니터단이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시고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NGO 국감평가모니터단의 활동들이 우리 정치를 효율적,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優秀議員 受賞所感

農漁民에게 希望을 주는
議政活動에의 새로운 覺悟를 다지며



朴 燾 太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총재 (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본 의원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 2001년도 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열분의 공동단장님과 참여한 270여 시민단체, 573명의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선과 국정감사의 충실도가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정감사 현장에 성실히 출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소속된 농림해양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 특히 쌀가격 안정대책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 등이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이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와 사업추진상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하였고, 정부와 농협 측으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어 이번 국정감사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의한 파행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 감사위원의 거취문제로 여야간 갈등

이 빛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소신을 밝히고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진정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사전준비 및 여야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국정감사에 활용하고, 감사원의 국정감사와 연계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충실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이 되어 모니터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본 의원이 선정된 것은 우리 당과 본 의원이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하여 국민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라는 채찍으로 여깁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성실한 국정감사 모니터의 표본을 보였 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요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優秀議員 受賞所感

誠實히 議政活動에 임하라는
채찍으로 삼으며



金 學 元

국회의원 · 자민련 원내총무(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에 대해 무척 기쁘고, 국감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로 모니터에 수고하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님들과 모니터 요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나름대로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했으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한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국감현장에 전달하고자 애썼으나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였는지 걱정스러우며, 더욱이 우수의원으로까지 선정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국민의 소리와 요구를 명심하여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이용호 국감'이라고 할만큼, 이용호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법사위 뿐 아니라 정무, 재정, 정보위 등 이용호 사건이 최대 논점으로 제기되었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도 광주지검, 대전지검, 서울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등의 국감에서 이용호 비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과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특정지역 출

신의 검찰인사 편중이 이용호 사건의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뇌부 퇴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온갖 비리의혹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실망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를 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의와 노력이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검찰 및 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명백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 방북단 파문으로 불거진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남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슴에 새겨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받아온 대북정책과 안보손상을 초래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중심이 되어 친북이적세력 척결대책 촉구와 국보법의 엄격 적용 등을 법원·검찰에 추궁하여 위협수위에 달한 우리사회의 안보의식 및 이념 붕괴 현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의 심려를 약간이나마 덜어준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온 국민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안보의 총체적 위기와 혼란을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질책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우리당의 원내총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는데, 양당 총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치정국·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감기간 중 제기된 언론사세무조사, 고위공직자부정부패, 인사난맥상, 대북정책 및 안보의식 혼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대해 시정촉구를 해나가며 그 추이와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감기간동안 밤낮없이 노력하신 국감 모니터단 여러분의 땀이 우리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다시한번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優秀議員 受賞所感

부단한 勞力을 要請하는 채찍질로 삼으며



朴 燾 太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총재 (농림해양수산위원)

법률소비자연맹, 흥사단 등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눈부신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사람으로서 먼저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국감우수의원’의 한사람으로 저를 선정해 주신 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요청하는 국민의 채찍질로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임해준 사실을 상기할 때 실로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는 지역구 방문이 곧 농어업 현장 방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간에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했건 저의 의정활동 중 많은 부분은 농어촌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농어촌의 실상 그리고 나름대로 정립한 우리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보다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에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농림해양위원회를 지명한 이유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껏 노력했습니다. 당의 부총재로서 적잖은 당무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지만 국정감사 우선이라는 기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대적 발전추이에 맡겨 버리는 듯한 우리 농어업인의 소득문제, 농어촌 사회 전체를 보지 않고 순수 농어업정책 일변도로 흐르는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농어업인만큼 어려운 계층이 없습니다. 과도한 부채, 도시서 민보다도 훨씬 낮은 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피감기관, 제한된 시간 등의 사정들로 인해 실제 의욕만큼 할 말을 다하거나 짚을 것을 제대로 짚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생각하며 한가지라도 더 얘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내어 놓겠다는 욕심이야 가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느낀 아쉬움과 미진한 부분은 차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동료의원들도 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활발한 국정감사활동을 위해 청량한 자극제가 되어 주신 '국감NGO모니터단'에 거듭 감사드리고,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참여단체가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위해 기울여 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